

## 하나님인가, 하느님인가?

김중은\*

한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제4판, 2005년 확정판, 이하 『개역개정』)의 새로운 개정을 위해 아래에서 구약 본문 번역과 관련하여 될수록 간략하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구약성경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지칭하는 일 반명사 신(神) 명칭들인 엘(אל)과 엘로힘(אלהים)의 한글 번역 대응어로서 **하나님**인가, **하느님**인가의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의 로마 가톨릭은 2005년 출간한 한글 성경에서 엘과 엘로힘의 신 명칭 번역을 ‘하느님’으로 통일했다.<sup>1)</sup> 한편 전통적인 개신교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이 두 신 명칭을 모두 ‘하나님’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안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한글 구약 번역과 『개역개정』의 새로운 개정에서는 **엘**은 ‘하느님’으로,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구별해서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부합할 뿐 아니라,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라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sup>2)</sup> 현재 국어사전에서도 하느님과 하나님을 구분하여, ‘하나님’은 “개신교에서 ‘하느님’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고, ‘하느님’은 “종교적 신앙의 대상. 인간을 초월한 절대자로서 우주를 창조하고

\* 스위스 Universität Base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Dr.theol.)를 받음.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jekim@puts.ac.kr](mailto:jekim@puts.ac.kr).

1)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승인, 『성경』(2005).

2) 참조, 김중은, “시론: 하나님과 하느님”, 『성서마당』 79 (2006.9.), 5-8; 비교, 손은실, “‘하느님’ vs ‘하나님’ 논쟁의 재해석: 기독교 용어 통일의 단초”, 『종교와 문화』 42 (2022), 1-32.

주재하며, 불가사의한 능력으로써 선악을 판단하고 화복을 내린다고 하는 신(神).”으로 설명하고 있다.<sup>3)</sup> 지금 애국가 1절의 가사에도 ‘하느님’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개신교 기독인들 중에는 하나님으로 고쳐 부르거나, 하느님이라는 발음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전 성경 본문에서는 일반명사로서 두 가지 신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고, 한글 번역에서도 이 둘을 구분하여 옮길 수 있다.

한글 성경 번역사에서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의 한글 번역용어에 관해서 흥미로운 변천과정이 있었다. 1882년 출간된 역사상 최초의 한글성경인 소위 로스역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에서 신(神) 명칭은 ‘하느님’이었다. 1883년부터 로스역은 신 명칭을 ‘하나님’으로 바꾸었다. 1887년에 출판된 로스역 한글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에서도 참 신 명칭은 ‘하나님’이었다. 이 때 하느님이나 하나님은 표기는 다르지만 ‘하늘(하늘)’+‘님’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당시 중국어 성경의 ‘상제(上帝)’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고유한 토속어이다.

1885년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내한하기 시작하고, 기존의 초기 개인역들인 로스역이나 이수정의 언해역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 한글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 위해 1893년 공인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미국성서공회가 한국에 권서(勸書)로 파송한 알렉산더 피터스(A. A. Pieters, 1871-1958. 彼得)는 1898년에 개인역으로 구약 최초의 한글 번역인 『시편촬요』를 출판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철자가 바뀌어 ‘하느님’으로 나온다. 이후 1906년에 공인번역위원회역으로 출간된 신약전서와 구약역으로 처음 낱권으로 출간된 『창세기』에서도 ‘하느님’ 표기를 사용했다. 언더우드(H. G. Underwood, 1859-1916. 元杜尤)는 공인번역위원으로서 하느님이나 하나님 또는 하느님에 반대하고, ‘상제, 텃쥬, 참신’ 또는 ‘상쥬’를 주장했으나, 1906년 런던의 영국성서공회가 한글 성경번역에서 ‘하느님’을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결국 1911년 3월에 출간된 역사상 최초의 한국교회 공인 한글 성경전서인 구역(舊譯) 『성경전서』는 ‘하느님’을 선택했다. 1925년 게일과 이원모(李源謨)의 개인역으로 출판된 새번역 성경에서도 신 명칭은 ‘하느님’으로 나온다.

그동안 ‘하느님 → 하나님 → 하느님’으로 표기는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모두 ‘하늘(늘)’+‘님’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공인번역위원회의 위원인 게일(J. S. Gale, 1863-1937. 奇一)은 성경에서 ‘하느님’의 의미는 ‘하늘

3) 예컨대, 민중서림 편집국 편, 이희승 감수,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제6판 전면개정판 (서울: 민중서림, 2017) 참조.

의 주(主)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하느님에서 ‘하느’는 한글(한국어)에서는 ‘하나’와 ‘크다’는 뜻을 가진 용어로서, 한 분이시며 특히 ‘유일하신 창조주’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 게일의 이러한 견해는 아마도 당시에 교분을 가지고 있었던 한글학자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의 영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제 1911년 3월에 구역 『성경전서』가 출판된 이후 점차로 ‘하느님’은 게일이 설명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크신 한 분을 강조하는 유일신(唯一神)이며 창조주의 의미를 가진 신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38년에 출간된 『성경 개역』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계승하고 있으며, 다만 ‘개혁철자법’을 적용하여 ‘하느님’은 다시 ‘하나님’으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글 개역 성경전서의 맞춤법 개정은 1952년과 1961년 두 차례 있었다.<sup>4)</sup>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신앙의 참 신 하나님을 고유명사 이름은 한글 성경 번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여호와’로 표기하며, 마소라 본문에서 약 6,828회의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여호와라는 읽기는 신명사문자(요드 헤 바브 헤, יהוה)의 히브리어 네 자음(子音)에 ‘아도나이(אֲדֹנָי, 나의 주님이란 뜻)’의 세 모음(母音)들을 붙인 것으로서, 서구 16세기 교회개혁 시대부터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다. 소위 ‘신명사문자(神名四文字, Tetragrammaton)’로 알려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의 정확한 발음은 마소라 전통에서는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유대교 전통에서는 ‘그 이름’, 또는 ‘아도나이’로 읽는다), 지금까지 그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다. 야훼, 야웨, 야베(영어로 Yahweh) 등의 독법(讀法)은 어디까지나 희랍 교부들이 남긴 현존하는 문건 자료에 나타난 음역(音譯)들에 근거하여 현대 학자들이 추정하는 발음일 뿐이다. 일찍이 그리스어 칠십인역(LXX)에서 신명사문자를 ‘퀴리오스’(κύριος, 주님, 영어로는 ‘the LORD’)로 번역한 이래(출 6:2; 겔 13:23 등 참조), 오늘까지 서양의 대다수 성경들은 이러한 번역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한글 『새번역』 구약성경에서도 그에 따라 ‘주(님)’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히브리어 구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외에도 여호와와 신성(神性)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로서 신 명칭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 하나가 히브리어로 ‘엘’이고, 다른 하나는 ‘엘로힘’이다. 이 두 단어는 과거 구약학계에서 그 어원이나 어근이 같은 데서 유래했다는 학설도 있었으나, 현재 21세기에 권위 있는 고전 히브리어 사전들에서는 그 어원들이 아직 불분명하고 각각 다른 어휘들로 취급되고 있으

4) 한글 성경번역에서 신 명칭 용어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04-118, 179-188, 특히 116 이하.

며,<sup>5)</sup> 구약 주석적 신학적 관점에서 이 두 용어들은 상호 호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신 명칭들로 설명한다.<sup>6)</sup> 여기 한정된 지면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명사로서 이 두 신 명칭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 먼저 이 두 단어는 모두 이스라엘 신앙의 참 신 여호와를 지칭할 뿐 아니라, 이방종교의 신(또는 신상, 우상)들도 지칭할 수 있다(엘로힘의 경우: 창 35:2; 출 12:12; 사 8:33; 10:6; 렘 43:12; 왕하 17:31; 사 36:18 등. 엘의 경우: 출 15:11; 시 29:1; 82:1; 겔 28:2 등 참조). 본래 엘(복수 ‘엘림[אֱלִים]’)은 주전 14세기 경 가나안의 우가릿 토판문서와 그보다 오래된 아카드어(고대 바빌론-앗시리아어) 문서에도 나타나는 신 명칭으로서 셈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보편적 신 개념이다. 엘로힘(단수 ‘엘로아흐[אֱלֹהִים]’)도 엘과 비슷한 일반명사로서 일반적 신 개념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고대 아람어(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아람 사람들이었다, 신 26:5이하) 방언 계통에서 선호한 신 명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소라 본문에서 히브리어 엘로아흐(엘로힘)에 상응하는 아람어 용어는 ‘엘라흐’(אֱלָהִים, God; god, deity. 복수형은 ‘엘라힘[אֱלָהִים]’). 모두 96회: 단 2:18; 4:8=MT 4:5; 5:3; 6:26=MT 6:27; 스 5:1-2; 렘 10:11 등)가 사용되며, 신명사문자는 나오지 않는다.<sup>7)</sup> 히브리어 성경에서 엘은 인명이나 지명과 복합명사로 사용되는데(벤엘, 브니엘, 이스마엘, 엘리야, 사무엘, 요엘, 다니엘 등), 엘로힘은 지명이나 인명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쨌든 구약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계시 의존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주위 세계 셈족의 보편적 신 명칭들인 엘과 엘로힘(엘로아흐)을 흡수하여 고유명사 여호와와 동일시함으로써 중심성(배타성)과 확장성(포용성)을 함께 갖추게 되었다(창 2:4 이하; 창 14:18 이하; 신 4:35; 사 42:5; 시 10:12; 85:8; 단 5:23; 6:26-27=MT 6:27-28 등 참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이름부터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이 그 증거이다. 구약 신학과 주석에서 이스라엘의 엘은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된 하느님이다(출 6:3; 비교, 출 3:15). 달리 말하자면 엘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느님이시다(창 46:3; 49:25 등). 이 엘 하느님은 이방신들과 구별

5) 참조, D. J. A. Clines,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I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 Aufl. Gesamtausgabe (Berlin: Springer, 2013) 등.

6) 참조, E. Jenni and C. Westermann, eds.,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I (Peabody, Mass.: Hendrickson, 1997).

7) 참조, D. R. Vance, et al., *Biblical Aramaic: A Reader & Handbook* (Peabody, Mass.: Hendrickson, 2016).

하여 정관사가 붙거나 엘 엘온(אלֹהֵי עֵלְיוֹן, 시 78:35, 지존하신 하느님. 비교, 창 14:18; 행 16:17), 엘 샷다이(אלֹהֵי שָׁדַי, 창 17:1, 전능한 하느님), 엘 칸나(אלֹהֵי קַנְאָן, 출 20:5; 신 5:9, 질투하시는 하느님), 엘 하이(אלֹהֵי הַיָּם, 수 3:10, 살아 계신 하느님), 엘 올람(אלֹהֵי עוֹלָם, 창 21:33, 영원하신 하느님. 비교, 『개역개정』에서는 ‘엘’의 번역이 생략되었다!) 등의 수식어가 붙으며, 마치 부모와 같은 하느님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택하신 개인과 집단(가족, 백성)을 가까이 돌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특히 시 22:1=MT 22:2; 18:2=MT 18:3; 63:1=MT 63:2 등 참조). 한편 엘로힘은 창세기 1:1-2:3의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주어로 35회나 밀도 높게 반복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구약 신학적으로는 피조물이나 인간과 구별되는 크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두드러지는 신 명칭이며, 문법적 형태는 복수지만 대체로 문맥에서는 단수 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말 ‘하나님’의 의미와 잘 어울린다.

엘(복수 ‘엘림’)은 구약에 약 237회 사용되었고(시편, 77회; 율기, 55회 등. 고어풍의 문맥에서 자주 등장한다), 엘로힘(단수 ‘엘로아흐’)은 그보다 열배나 더 많은 약 2,602회가 나온다. 단수 ‘엘로아흐’도 약 58회 사용되었고 주로 운문(韻文)에서 나타난다. 중요한 점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본문에서 **여호와**는 곧 **엘(하느님)**이고(창 21:33; 출 20:5; 34:6; 신 4:35; 사 40:28; 시 85:8=MT 85:9 등), 또한 **엘로힘(하나님)**이다(창 2:4; 수 22:3; 사 40:28; 렘 3:22 등)! 특히 율기에서 엘은 엘로아흐나 샷다이와 동의적 평행 개념이며, 이스라엘의 참 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 호칭이다(율 36:5, 22, 26 등. 세 구절 모두 엘 앞에 ‘헨[הַיְיָ], 보라’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다). 현재 『개역개정』에서 엘이나 엘로힘이 이방 신(들)이나 신상 또는 신적인 존재(예컨대, 시 8:5 천사?)를 의미하는 경우는 기존 번역 그대로 사용하고, 여호와를 지칭하는 엘로힘도 현행대로 ‘하나님’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창 2:4 이하). 그런데 여호와나 엘로힘과 동의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엘의 경우는 ‘하느님’으로 구분하여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충실하고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엘과 엘로힘이 연속하여 함께 나올 때는 각각 하느님과 하나님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칠십인역 이래 서양의 번역본들과 비교해 볼 때 한글 번역에서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LXX은 엘로힘과 엘을 구분하지 않고 ‘호 세오스(ὁ θεός)’로 번역했고, 신약 그리스어에서도 이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 예컨대, “**엘 엘로헤 이스라엘**”(אלֹהֵי יִשְׂרָאֵל, 창 33:20)의 경우, 현재 『개역개정』 본문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고 각

주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여 엘과 엘로힘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새번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두 신 명칭을 구별하여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더 충실하고 더 좋은 번역이라고 감히 제언을 드린다. 마소라 본문에서 통틀어 세 번 나오는 “엘 엘로힘 여호와(אלֹהֵי יְהוָה יְהוָה)”가 여호수아 22:22에서 연속해서 두 번 반복되고 있고, 이곳을 『개역개정』에서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로 두 번 되풀이하여 번역했는데(비교, 『새번역』은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주교 『성경』은 “하느님 주 하느님”), 여기서도 엘과 엘로힘을 구분하여 ‘하느님 하나님 여호와’(좀 더 유연하게 번역하자면, ‘하느님 곧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일 것이다. 다른 한 곳 시편 50:1(=LXX 49:1) 아삽의 시에서도 여호수아 22:22의 삼중 신 명칭과 똑같은 구절이 한 번 더 나온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같은 구절을 조금 다르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다.

참고로, **칠십인역** 시편 49:1(=MT 50:1)에서는 “세오스 세온 퀴리오스(θεὸς θεῶν κύριος, 신들의 신이신 주님)”로 번역했고(A. Rahlfs, ed.,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불가타**는 “fortis Deus Dominus, 강하신 분 하나님 주님”이라고 했으며(=시 49:1. B. Fischer, et al., ed.,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69); **KJV**는 “The mighty God, even the LORD”라고 했고, **NKJ**(1982)는 “The Mighty One, God the LORD”로 했다. 현대 영어번역 **TNIV**(2006)는 “The Mighty One, God, the LORD”로, **ESV**(2008) 역시 “The Mighty One, God the LORD”라고 했다; **ZB**(2012)에서는 “Der Gott der Götter, der HERR”로, **LB**(2017)는 “Gott, der HERR, der Mächtige”로, **ELB**(Elberfelder, 2004)는 “Gott, Gott, der HERR”라고 하고 각주에서 앞의 Gott는 히브리어로 ‘el’이라고 했다; **JB**(1994)는 “Le Dieu des dieux, Yahvé”로; 유대교 구 영어 번역(**JPS**, 5718-1957)은 “God, God, the LORD”로, 그리고 그 새번역(**NJPS**, 1999 · 5759)에서는 “God, the LORD God”로 했다. 동방정교가 자신들의 칠십인역 대본에서 번역한 현대 영어성경에는 “The God of gods, the Lord”로 되어있다(*The Orthodox Study Bible*, Thomas Nelson, 2008). 다른 한편, 북한에서 발행한 『성경전서』에서 시편 50:1의 이 구절은 ‘하느님, 하느님 여호와’로 나온다.<sup>8)</sup> 비교적 최근에 지금까지 영어권에서 출판된 수십 종의 성경들을 번역의 관점

8) 조선기독교도련맹중앙위원회, 『성경전서』(평양종합인쇄공장, 1990.4.20. 발행). 이 성경에서 같은 구절이 나오는 수 22:22에서는 ‘가장 높으신 하느님 여호와, 가장 높으신 하느님 여호와’로 반복하고 있다. 이 북한 성경은 『공동』(1976)을 북한식으로 고쳐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서 재검토하여 구신약을 합해 그 문제점들을 58,506개의 각주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소라 원전에 충실한 새번역을 출간한 새영어번역(New English Translation)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22:22와 시편 50:1의 ‘엘 엘로힘 여호와’를 일관되게 “**El, God, the Lord**”로 번역했다(*The NET Bible*, 2nd ed., Biblical Studies Press/ bible.org, 2017). 칠십인역 이래로 ‘엘 엘로힘 여호와’가 나오는 이 세 구절에서, ‘엘 엘로힘’을 문법적으로 동격(apposition)이 아니라 소위 ‘구성형’(construct state)의 관계로 보고 ‘신들 중의 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서양 언어에서 엘과 엘로힘을 구별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번역 용어들을 찾기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일종의 오역이라고 볼 수 있다(비교, 출 15:11; 신 10:17; 시 136:2; 단 2:47; 11:36 등).

구약성경의 여호와 신앙과 연관하여 엘과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 즉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고대 이스라엘 국가나 히브리 민족 신이 아니고,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적이며 보편적이고 유일하며 삼위일체이신 참 신(神)이시며, 여호와(주님)는 이방인들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느님’(하늘님, 옥황상제, 또는 천지신명을 포함하여)이시며, 또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창 12:1-3; 신 10:17; 시 136:2; 사 19:24-25; 45:5-6; 65:1; 암 9:7; 단 2:47; 말 1:11; 마 5:45; 28:19; 막 16:15; 행 14:16-17; 17:22-31; 롬 1:18-23; 계 1:8 등 참조). 성경에서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 신앙이 이방 신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방신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신 4:28; 사 44:6-20!; 시 115:4-7; 135:15-17 등 참조; 비교, 시 82:1, 6-7; 95:3; 97:7 등). ‘임마누엘’(אל עִמָּנוּ, 사 7:14 각주)의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보다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로 번역하면 좋지 않을까?

2.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호와(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노아와 아브라함 언약 포함)은 성경신학에서 창조신학과 함께 언약신학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행동의 골간(骨幹)을 이루는 핵심 사건이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을 통해 그 언약은 통합되고 성취되었다(눅 22:20; 요 17:24-26; 19:30; 갈 3:28; 4:4-5; 엡 1:9-10; 딤후전 2:6; 히 8:6, 8; 9:15 등).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언약사건을 히브리어로는 주로 “카라트 브리트”(כָּרַת בְּרִית),

언약을 맺는다)로 표현한다. 히브리어 동사 ‘카라트’(칼)의 본래 의미는 ‘자르다, 쪼개다’(영어로 to cut; 독일어 schneiden)이지만, 한국어로 ‘언약을 자르다’는 표현은 어색하므로, 한글 번역에서는 ‘언약을 맺는다’로 옮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개역개정』에서는 “카라트 브리트”의 원문을 ‘언약을 세우다’라고 번역한 곳이 적지 않다(창 15:18; 출 24:8; 신 4:23; 5:2, 3; 9:9; 29:1=MT 28:69; 29:25=MT 29:24; 31:16; 왕상 5:26; 8:21; 왕하 23:3; 대하 5:10; 렘 34:13, 15, 18 등). 그러나 ‘카라트 브리트’를 ‘언약을 맺다’라고 번역한 곳(창 31:44; 신 31:16; 수 9:15; 왕상 8:9/비교, 왕상 8:21; 렘 11:10 등)도 있고, ‘언약하다’로 번역한 곳(출 23:32; 삼상 20:16; 시 50:5 등)도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한편 마소라 원문에서는 우리말 ‘언약을 세우다’라는 표현에 문자 그대로 상응하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헤킴(חֵקִים, 쿼[ום] 동사의 히필) 브리트”도 사용되고 있다(창 6:18; 9:11; 17:7; 겔 16:60 등). 신명기 8:18에서는 그러나 “르마안 하킴 애트 브리토(אַתְּ בְרִיתוֹ הַקִּים לְמַעַן?)”를 ‘그의 언약을 세우려고’라고 하지 않고, ‘그의 언약을 이루려고’라고 번역했다(『개역개정』 참조). 그 두 가지 히브리어 어법의 차이를 주석적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카라트 브리트’가 언약을 맺는 사건에 의미의 중점을 둔다면, ‘헤킴 브리트’는 그 언약을 세우고 지키는 것, 달리 말하자면 그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루는데 그 의미의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창 15:10, 17-18; 렘 34:18. 비교, 삼상 1:23; 15:13; 왕상 2:4; 12:15; 렘 28:6; 대하 6:10 등 참조). 본 필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서구의 비평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카라트 브리트’는 보다 오래된 문서층에 속하고, ‘헤킴 브리트’는 그보다 후대의 문서층에 속한 어법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브리트’(언약, 영어로 covenant)의 빈도수는 287회이며, ‘카라트 브리트’는 약 83회 나오고(창 15:18; 출 24:8; 34:27; 신 4:23; 5:2, 3; 9:9; 29:1=MT 28:69; 29:25=MT 29:24; 수 24:25; 렘 31:31; 겔 37:26; 스 10:3 등; 비교, 신 7:2 등), ‘헤킴 브리트’는 그보다 적은 13회 정도 나타난다(창 6:18; 9:9, 11, 17; 17:7, 19, 21; 출 6:4; 레 26:9; 신 8:18; 왕하 23:3; 겔 16:60, 62 등; 비교, 왕하 23:3; 렘 34:18). 앞으로 『개역개정』의 새로운 개정작업에서는 ‘카라트 브리트’는 ‘언약을 맺다’로, ‘쿼(히필) 브리트’는 ‘언약을 세우다’로 원전에 더욱 충실하게 구별하여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3. 시편 78:71의 『개역개정』(2004년 판) 본문 “젓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에서 ‘그들’이라고 한 것은 마소

라 본문에서는 남성 3인칭 단수 접미사를 목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를”로 고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바로 앞 70절에서 다윗을 택하신 내용과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개정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2005년 11월 4판(확정판)부터 『개역개정』 본문은 이곳을 “그를 이끌어 내사”로 슬그머니(?) 바로 잡아놓았다. 한편 1938년 『성경 개역』 본문에서는 “**더를** 잇쓰샤”라고 이미 제대로 번역했었다(1911년 판 한글 성경 『성경전서』 시 78:71과 비교)! 언제 왜 이런 어이없는 오역이 생겼는지 살펴볼 일이다.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 연구소에서는 이번 기회에 2005년 확정판 이전 1998년 초판 이후 『개역개정』에서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은 곳들을 정리하여 공개해 주면 미연에 이러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어서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편 29:9에서 『개역개정』은 본문에 “여호와와 그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라고 했고, ‘낙태하게’에 각주 1)을 표시하여 난하에 “**새끼를 낳게**”라고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번역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낙태하게 하시고**’라고 번역한 마소라 본문의 히브리어 단어는 ‘**여홀렐** (יְהוֹלֵל)’인데, 이 동사의 어근은 ‘**홀** (חָל)’로서, ‘폴렐(Polel)’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를 사용했다. 세계 구약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최신 고전 히브리어 사전에서 시편 29:9의 이 단어의 일차적 의미는 “산고(産苦)를 겪게 하다”이며, 또한 아기(새끼)를 낳는다는 히브리어 동사 ‘알라드(אָלַד)’와 동의어이다(사 51:2; 신 32:18 등).<sup>9)</sup> 그러므로 ‘낙태하게 하시고’는 합당한 번역으로 보기 어렵고, 각주에 있는 “새끼를 낳게 하고”나 “산고를 겪게 하고”를 본문에 넣고, ‘낙태하게 하시고’는 삭제하도록 제안한다(비교, 대한성서공회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에서는 원전에 충실하게 “새끼 낳는 아픔을 겪게 하고”로 번역했다).

4. 마소라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접속사 ‘**브**(וּ)’(영어의 and, but, also, even, then, because, so that 등)이다. 접속사 ‘브’는 마소라 본문에 약 50,524회 사용되고 있다.<sup>10)</sup> 히브리어 ‘브’ 접속사의 사용은 비단 번역에서만 뿐만 아니라 문맥에서 본문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문법-주석적으로 앞의 구절과 뒤따르는 구절과의 문맥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말 번역에서 마소라 본문의 히브리어 ‘브’ 접속사 번역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다.

9) 참조,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345.

10) 참조, M. V. Van Pelt and G. D. Pratico, *The Vocabulary Guide to Biblical Hebrew and Aramaic*, 2nd e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9).

예컨대, 창세기 1:1 다음 2절을 시작할 때 접속사 ‘브’가 생략되어 있다. 창세기 3:15하반 시작에서도 반의(反義) 접속 표현인 ‘브’(‘그러나’)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또 출애굽기 1:1에서 마소라 본문은 접속사 ‘브’로 시작하는데,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었다. 레위기 1:1과 민수기 1:1에서도 각각 ‘연속의 바브 미완료형’으로 시작하고 있고, 여기서도 번역할 때 각각 접속사 바브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시작에서 모두 접속사 바브가 나오는 것은 이 책들이 연결된 전체 문맥을 살펴보는 관점에서도 의미심장하다. 한두 번의 개정작업으로 접속사 ‘브’를 우리말 번역에서 되살리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관심을 두고 조금씩이라도 개정하고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4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9일)